

한솔제지

무역의 날 4억불 수출의 탑 수상



한솔제지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 41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4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한국 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

해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 4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한솔제지는 “IMF 이후 침체된 경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4억불 수출 달성이라는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솔제지는 점점 발전해 가는 모습과 현대적인 영업활동, 전산시스템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의 모든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한솔제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한솔제지 제품이 널리 사용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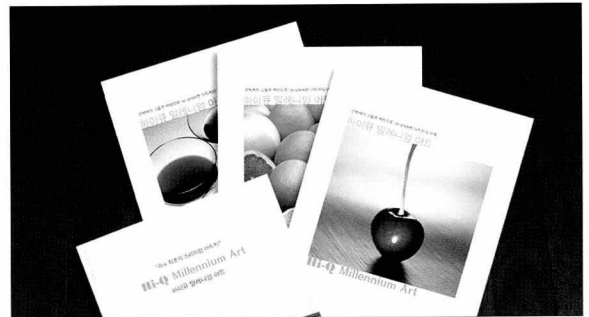
최고급 펄지 ‘오로 스페셜’ 출시



한솔제지는 최근 펄(Pearl) 지인 ‘오로’ 지를 업그레이드한 최고급형 ‘오로 스페셜’을 출시했다. 원지의 거칠은 표면에 펄 코팅(Pearl Coating)을 입혀 금속표면의 느낌이 나도록 하는 ‘오로 스페셜’은 강한 시각효과를 노리는 디자인 및 팬시제품, 책 표지, 카드 등에 적합하다. ‘오로 스페셜’은 ‘오로스페셜 화이트’와 ‘오로스페셜 골드’라는 브랜드로 세분화, 고급 팬시지 시장을

향상하고 있으며 고급 팬시지인 ‘매직터치’를 원지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한솔제지는 “높은 수입단가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았던 펄지가 ‘오로’ 지로 인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되어 다양한 종이 선택의 폭을 제공하던 터에, 업그레이드된 ‘오로 스페셜’은 더욱 더 폭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 고급 팬시지 시장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의 특수지 시장을 수입자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솔제지 천안공장(구 한솔파텍)은 다양한 특수 지종을 생산하여 고가의 수입지에 대항하고 있다. 국내의 수요가 많지 않아 생산을 꺼리던 특수지를 국내의 대표적 제지업체인 한솔제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인 결과 다양한 특수지(팬시, 특수 기능지)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프리미엄급 ‘Hi-Q 밀레니엄’ 출시



한솔제지가 구랍 1일 미국의 ‘No.1 Grade’ 시장진입을 목표로 한 프리미엄급 인쇄용지 ‘Hi-Q 밀레니엄 아트지’를 새롭게 출시했다. ‘Hi-Q 밀레니엄 아트지’는 한솔제지가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연간 50억원 이상의 비용과 연구개발 노력을 투입, 탄생한 제품이다. 이를 통해 한솔제지는 국내 고급용지시장의 품질경쟁이 가속화되는 한편 국내 업체의 품질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객과 유대 통한 품질경영 박차

한솔제지 선우영석 부회장이 직접 거래선을 방문하여 품질을 체크하고, 고객들을 공장으로 초청하여 신상품 품평회를 가지는 등 본격적인 품질경영에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선우영석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한진P&C, 삼성문화인쇄 등 주 거래선을 방문하여 한솔 제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품질개선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교감을 가졌으며 구립 7일에는 고객들을 공장장으로 초청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인 'Hi-Q 밀레니엄 아트'에 대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장견학에서 직접 안내자 역할을 도맡는 등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한층 공고히 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올해 초 선우영석 부회장이 내세운 모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 중 하나가 품질 절대우위 확보였는데,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지난 1년간의 실적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 차원에서 직접 품질현황을 챙기는 한편, 2005년을 맞이하여 품질경영 원년의 해로 선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솔제지는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에 대한 요구를 청취하여 6개의 중점관리 항목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매월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등 3부문에서 고객평가단을 선정, 보다 세분화된 항목으로 매월 품질의 추이를 확인하는 등 품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은사마 효과 한솔에도

일본에서 인기몰이중인 텔런트 배용준의 화보집에 '이매진'지가 사용됨에 따라 한솔제지가 예상치 않은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솔제지는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용준의 화보집에 최고급 인쇄용지인 '이매진'지가 사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추가 주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박대원 특수지 영업팀장은 “배용준의 화보집은 현재 10만부가 인쇄된 후 모두 매진된 상황이며 일본에서 추가제작을 의뢰함에 따라 2쇄, 3쇄까지 인쇄하게 됐다”며 “은사마 열풍이 한솔제지 매출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진출을 앞둔 다른 연예인들이 화보집이나 캘린더 등의 발매에 '이매진'지를 활용하게 되면 매출 증대뿐 아니라 간접 홍보효과를 통한 브랜드 가치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매진'지는 일반 인쇄용지보다 색감의 표현이 우수해 주로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인쇄가 필요한 화보집이나 VIP용 캘린더 등에 사용된다

무림·신무림 제지

신임 김인중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 가져

신무림제지는 구립 1일 본사 리프레쉬룸에서 김인중



신임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인중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요동치듯 급변하는 시장변화와 상황을 정확히 예측 분석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또 이러한 전략들을 현실화하여 실익을 확보하고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략 중심의 경영, 내실을 다지는 경영, 실전능력 위주의 인재양성'으로 어떠한 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굳건히 내실을 다지는 현명한 경영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후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용기, 의지를 갖고 믿음과 신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인중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고과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부터 신무림제지와 인연을 맺고 주로 기획·재무부문 임원을 역임하다가 2003년 12월부터는 영업총괄담당 부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이에 앞서 신무림제지는 지난해 11월24일 이사회를 열고 김인중 영업총괄담당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04년 하반기 조직개편 단행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구립 1일 신임 대표이사 체제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재무부문과 기획인사부문이 관리부문으로 통합, 현 재무담당 박인규 전무가 담당하게 됐다. 영업부 문장이었던 이규현 상무는 영업을 총괄하게 돼, 대표이사로 승진한 김인중 사장의 바통을 이었고 김경래 대구공장 부공장은 공장장으로 승진, 발령 받았다. 또한 신무림제지는 김철규 부장을 경영정보부문장 이사로, 안홍석 부장을 국내영업부문장 이사로 각각 신임 임원, 발령했다. 신무림제지는 이번 임원인사로 본사의 조직을 관리, 영업, 구매 3개 담당 임원으로 단순화시켜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임 김인중 대표이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PI추진팀을 전격 신

설, 2006년까지 PI, ERP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향후 모든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세계적인 제지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 공모전 수상 달력 제작 배포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가 2005년에 사용할 벽걸이 용과 탁상용 달력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 이번에 배포되는 달력은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전국 대학생 대상 달력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과 최우수상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제작한 벽걸이 달력은 햇기, 늘품, 울력, 다솜, 가온, 미립 등 순 우리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해 기존 달력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제작용지로 슈퍼밀키지(Super-Milky Paper), 스타밀키지(Star-Milky Paper), 세미밀키지(Semi-Milky Paper) 등 밀키 페이퍼(Milky Paper) 3종과 폴라리스지 3종(Polaris-White, Ivory, Cream) 등 폴라리스 3종의 고급 펜시용 인쇄용지를 사용하면서 더욱 품격을 높였다. 또한 탁상용 달력은 종이와 생활을 주제로 책과 쇼핑백, 우표, 복권, 티켓, 종이컵 등 실생활에 친근한 제품 이미지를 통해 종이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용지는 네오스노우화이트지 220g/m²이 사용됐다.

국내 최초 중국에 자본·기술 투자



신무림제지가 국내 인쇄용지업체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한다. 구랍 7일, 신무림제지는 중국 장시성 난창에서 첸밍제지, SAPPI, IFC 등 3개사와 함께 연산 35만톤 규모의 장시 첸밍제지 경량코팅용지 공장 투자계약식을 가졌다.

이번 투자계약은 중국이 51%(8772만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PPI가 34%(5848만달러), IFC(국제금융공사)와 신무림제지가 각각 7.5%(1290만달

러)씩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신무림제지는 7.5%라는 비교적 낮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영진인 총경리와 주요 기술진을 파견, 경영과 실질적인 공장운영권을 갖게 됐으며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마케팅위원회에도 정식으로 참석함으로써 향후 장시 첸밍제지의 판매를 비롯한 운영 전반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무림제지는 이번 투자와 관련 “장시 첸밍제지에 대한 합작투자를 통해 종이 생산 및 소비가 미국에 이어 2위인 중국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얻고 향후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시 첸밍제지의 합작공장은 주로 잡지용지로 사용되는 경량코팅용지를 연산 35만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공장으로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신무림제지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국내 판권을 갖게 된다.

한국제지

인쇄·지류 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제지는 구랍 14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4가지 주제로 이뤄진 인쇄·지류 기술세미나를 오전과 오후 각각 2차례 개최했다.

최용오 영업지원팀장의 사회로 치러진 이날 세미나는 나정환 기술연구팀장의 ‘프리미엄 아트지 엑스프리(XPRI)’, 정재완 한국SP전략연구소장의 ‘뉴마케팅사고와 불황기 성공포인트’, 오세웅 신구대학 교수의 ‘최신 인쇄기의 인쇄품질 관리’, 김광권 영업본부장의 ‘제지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나정환 팀장은 한국제지가 하이퍼(Hiper)라는 브랜드 아래 프리미엄급 수준의 최고급 아트지로 출시한 엑스프리(XPRI)를 국내

아트지는 물론, 해외 유명 프리미엄급 제품과의 차이와 특성을 들어 설명했다. 정재완 한국SP전략연구소장은 불황기 성공의 요인으로 명문화된 목표를 세우고 확신과 열정을 갖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것을 역설하며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립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오세웅 신구대학 교수는 제판·인쇄의 품질관리 스케일을 중심으로 인쇄관리의 요점을 △판의 재현성(노광 과부족) △Double과 slur △Dot gain △밝은 곳의 망점 날음 △어두운 곳의 망점 배임 △잉크 문힘량 △Gray balance △Trapping △Register △균일성 등으로 설명했다. 한국제지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광권 전무이사는 제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국제지산업 현황 △일본제지산업의 현황 및 예측 △중국 제지산업의 2020년 예측 △미국의 아트지(Free-sheet) 시장 및 한국 아트지 시장 △제지관련 산업의 미래라는 소주제 분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두성종이주

뉴칼라 어린이 종이공작전 개최



두성종이(주)가 운영하는 두성 페이퍼 갤러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뉴칼라 어린이 종이공작전'을 개최했다.

이번 종이 공작전에 소개된 뉴칼라 공작용 색지는 일본 린텐사가 조형학 전공 교수진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에코마크, 그린마크를 획득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종이이다. 이와 관련 최병호 기획실장은 "63색으로 구성된 뉴칼라 미술공작 색지는 어린이들이 처음 종이를 만졌을 때 느끼는 손의 감촉을 생각한 것으로 미묘한 색의 조화가 만들어 낸 풍부한 색상의 버라이어티는 다른 색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형적 감흥이 일어나게 하도록 유도한 '조형표현' 그 자체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두성종이는 구립 6일 일본 보육협회 '조형표현' 연구회 강사이자 손으로 보는 미술관, 갤러리 TOM의 부관장인 이와사키 기요시를 초청, 전국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2차례 '전문가를 위한 종이조형 특별 워크샵'을 가졌다.

화인페이퍼

고암 정병례 전각전 개최



화인페이퍼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24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화인종이갤러리에서 기획 전시회 고암 정병례 전각전을 개최했다. 화인종이갤러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림' (전각과 한지가 만나다)이라는 주제아래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통해 전각과 한지가 어울린 기록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현대화하여 종이문화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기서 '열림'이 의미하는 것도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기술이 결합, 새로운 문화를 연다는 뜻이다. 전각은 돌, 나무, 옥, 금속 등의 작은 공간 면에 글자를 조형적으로 배열하여 칼을 대어 새기는 것으로서 고암 정병례(58세)씨는 30여년간 한국 전각 예술의 외형을 확장하는데 전념했다. 전연대상전 룩수상(1984년) 및 금수대상(199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1992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1992년), 동아미술제 특선(1993년) 등을 수상했으며 KBS 드라마 <왕과 비> 및 임권택 감독의 영화 <노는 계집 창>의 타이틀을 제작, 전각예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화인페이퍼는 지난해 11월15일 고암 정병례씨를 초빙, '전각의 새로운 가능성'이란 주제로 개장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갑준차장)